

# 성준이에게 사랑을...

## 포천중 어머니회, 일일찻집으로 온정 모아

포천중학교 어머니회(회장 배은영)는 지난 15일 신음동의 팀(Team)카페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란 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성준(포천중 3년)군을 위해 일일찻집을 열었다.

김성준의 병은 10월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다. 가장먼저 포천중학교 차태남교장과 교직원들이 361만원을 모아 김성준의 어머니(박경희씨, 39)에게 전달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포천중학교 전교생이 정성을 모아 400여만원을 마련했다.

일일찻집 뿐만 아니라 김성준군 돕기 운동은 개인에서 회사, 인근 부대까지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되어 더욱 많은 정성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5일 현재 포천초교에서 200만원, 포천중운영위원회 100만원, 포천단위농협 100만원, 보라매친목회

30만원, 불교회관 30만원, 고서방숙 불갈비 10만원 등 700여만원이 모금된 상태다.

또 김성준의 병이 몸에 맞는 골수를 찾아 이식하는 만큼 인근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은 헌혈증을 모아 67장 전달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SBS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팀도 오는 12월 4일 방영을 예정으로 취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은영 회장은 "일일찻집은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어머니들이 김성준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계획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1천300장의 티켓을 준비해 모금액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성준이가 완치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이 모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일찻집으로 2천여 만원이 모금되었고, 여기에 포천중학교 총



지난 15일 포천중학교 어머니회는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성준군을 돕기 위해 일일찻집을 열었다.

동문회장이 이각모씨가 선포 1천만 원을 보태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포천중 차태남 교장 및 교직원들과 포천중 어머니회는 지난 18일 성모병원에서 투병중인 성준

군과 어머니인 김경희씨를 찾아 일일찻집모인 금액과 각 단체들의 성금 4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 1318 우리를 말한다

본지는 일선학교 어린이회나 학생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장의 일을 통해 청소년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다. 청소년의 당당함과 당찬 계획 등을 통해 우리사회가 이들을 위해 지원할 것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강다연  
일동초등학교 어린이회장

일동초등학교는 독서교육활성화와 한자교육, 컴퓨터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학교 전교 어린이회장은 강다연(사진,6학년)회장이 출마 당시 내세운 공약사항이 독특하다.

"동요부르기 대회개최, 왕따 없애기, 체험학습기간 늘리기 등 주요 공약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일동초등학교 어린이회 강다연(사진,6학년)회장이 출마 당시 내세운 공약사항이 독특하다.

"동요부르기 대회는 지난 7월 9일에 실시해 실천했고 왕따 없애기는 왕따에 대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실천한 것으로 보지만 체험학습 기간을 늘리는 것은 선생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일동초등학교 자랑거리에 대해 강다연 어린이회장은 "그룹

사운드 밴드부가 아주 잘하고 있으며 축구부 또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독서활동이 활발한 것도 특징이며 학교 숲도 자랑거리"라고 밝혔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강다연 회장은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원인으로 선생님이 싫어서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우리학교는 선생님들은 친구 같은 존재"라며 "공부보다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바자회를 개최해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며 "바자회 수익금을 우리보다 못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데 사용되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을 많이 내세웠지만 많이 실천하지 못한것이 아쉬움"이라며 "꼭 지킬 것만 공약할 걸 하는 후회도 했다"고 한

다. 박민지(6학년)·박민우(5학년)부회장이 늘 함께 있어 든든하게 어린이회를 이끌어왔다는 강다연 어린이회장의 장래희망은 한의사로서 허준과 같은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한다. 독서교육활성화로 다독을 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강다연 어린이회장은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해 나갔다.

특히 기성세대에게 보다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주문하는 모습에서 다음세대는 보다 따뜻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김순진의 선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11) 호야 심부름**

"야, 우리 저녁에 위병소에서 강통차기하고 놀래?"

여름의 저녁이면 우리는 누가 모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군부대 위병소 앞으로 모입니다.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우리 동네 아이들은 늘 군부대 위병소 앞에서 흘러나오는 전기 불빛이 좋아합니다. 혼련이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어두워지면 늘 위병소 앞의 전등이 켜져 있으니까요. 커다란 꿀밤나무(플라타너스) 그늘이 시원하기도 하여 좋았지만 달이 없는 밤이면 졸졸 위병소 가의 명성이네 집 근처에서 위병소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달빛 삼아 도둑놈 잡기며 술래잡기, 그리고 강통차기를 하고 놀니다. 재미있게 놀다가도 순찰 또는 주번사관이라도 불러치면 무슨 전쟁터의 적군이라도 만난 것처럼 잘도 숨지요.

길환이네 집은 호야집입니다. 집안엔 호야를 잔뜩 쌓아놓고 살지요.

길환이 아버지께서는 자전거에 유리로 만든 호야(등잔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꺼는 유리)와 어항을 짚으로 꺼지지 않도록 잘 얹어, 한 자전거 가득 싣고서 동네 동네를 다니며 구멍가게에 납품을 하십니다.

"넋가에 가서 호야 좀 닦아 오너라. 깨뜨리지 말고 조심해서..."

호야를 닦는 일은 언제나 만이인 내 차례입니다. 깨지기가 쉬워서 어머니 아버지는 좀처럼 동생들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얼음을 깨고 김계 그을린 호야 지푸라기를 넣어 막대기로 돌리며 시린 손끝으로 닦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심부름입니다. 그러나 호야는 뜨거운 불에 녹은 유리를 입으로 얹게 불어 만드는 것이라 잘도 깨집니다. 날이라도 뒤흘 추운 날이면 호야는 더욱 잘 깨집니다. 그러면 한바탕 꾸중을 듣고 길환이네 집으로 달려가 호야를 사와야 합니다.

어디 돈이나 주시나요? 달걀을 들고 가서

바꾸어 오는 것이지요. 씨알뿔 한 마리가 알을 낳으니 우리는 그 맛난 달걀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계란으로 두부도 사고 호야도 사고 그래야 하나요.

길환이네 집에서는 호야뿐만 아니라 부뚜막에 작대기사탕 틀을 설치해 놓고 작대기사탕을 만들어 팝니다. 작대기 사탕은 정말 맛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에게 사탕 먹는 것을 자랑하기엔 최고지요.

"나, 한번만 빨아먹자!"

친구 앞에서 그 노랑과 반질반질한 막대기 사탕을 입에 쪽 빨아 꺼내며 자랑하면 누구도 한입만 빨자고 안할 수 없지요. 작대기사탕을 뜯으면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대기사탕은 총알 탄피 두 개나 계란 한 개, 그리고 사이사이 병 두 개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병이나 총알을 주는 것은 정말 큰 보물을 주는 것보다 기쁜 일입니다.

호야불은 기름불이나 등잔불보다 환하고 편합니다. 기름불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기 종지에 담아 목화를 무릎에 비벼 심지를 만들어 불을 켜니다. 등잔불은 석유를 넣고 목화솜을 비빈 심지나 무명실을 여러 갈래로 모아서 만듭니다. 기름불이나 등잔불을 켜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피마자기름을 쓰는 집도 있었지만, 호야불은 대부분 군부대에서 석유를 몰래 조금씩 빼다 호야불을 켜니다. 호야불은 호롱불이라고도 하는데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밤에 뒷간 가기에 편리합니다.

"참, 편한 세상이야! 아무 때나 불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 말이야"

어른들은 세상 참 좋아졌다며 말씀하시네요. 어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옆구리에 공구 주머니를 차고, 속에 구리철사가 들어있는 줄 타

래를 메고, 이집 저집 옮겨 다니며 공사를 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집집마다 줄을 두 줄씩 팽팡하게 담겨 메고 전봇대라는 크나큰 막목을 바아 그 위에 줄과 줄로 연결하더니 오늘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락도 나누어 주고 돼지도 잡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점등식이 뭐야?"

나는 속으로 무척이나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개울에 풀을 깔고 마당에 풀을 뿌고, 마당을 쓸며 야단석입니다. 우리 집 안방에 다섯 장이나 붙어있는 오치성 달력의 주인공 오치성이라도 오고, 군수도 오고, 면장도 오고, 군부대 여단장도 온다고 하네요.

우리 마을이 생긴 이후로 최고의 경사랍니다. 도대체 전깃불이 얼마나 환하길래 그 야단법석일까요...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계속)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 포천관인초 '장군의 동상' 동상 수상



포천관인초등학교 연극반 어린이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개최된 제 13회 전국어린이 연극경연대회에서 포천 관인초등학교 '장군의 동상' (지도 교사 심은행)이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금상은 익산 함열초등학교(교장 양경부) 6학년 4반 어린이들이 열연한 '내 짝꿍 최영대'가 수상했다.

은상은 인천 청천초등학교의 '내 마음의 선물' (지도 교사 임옥)·경남 함양 위성초등학교의 '화요일의 개구리' (지도 교사 김양호)가 안았다.

동상은 부천 부안초등학교의 '거짓말' (지도 교사 민유진)·포천 관인초등학교의 '장군의 동상' (지도 교사 심은행)에게 각각 돌아갔다.

## 12년동안 한결같이 신문배달 소녀 수시합격

### 영북중고 흥빈나 양 경동대학교 4년 장학생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12년동안 신문배달을 하며 학업에 전념해온 흥빈나 양(사진)이 경동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해외유학 2년 지원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학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시 영북면 영북중고등학교 3학년 흥빈나 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배달을 하면서 흥 빈 나를 도와 신문배달을 하던 흥 양은 고 3인 현재까지 12년째 신문배달을 한다.

새벽 4시 30분이면 매일 어김없이 일어나 신문배달을 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던 흥빈나는 학교 성적이 전교 1등으로 수시 1차 입시전형에서 합격한 것이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학급 부실장, 방송반 활동 등을 활발히 하며 청소년신문 미래 1318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수시모집에 합격한 흥 양은 "서울 소재 대학을 희망하며 원서



를 지원했으나 지방대학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결정했다"며 "대학에 입학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사회의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고유가 시대의 현명한 선택

## 볼케노 전기온풍기 유류온풍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5평형 7평형**  
DK-4005F / DK-4007F  
**권장소비자가격 : 410,000 / 450,000**  
· 자동온도조절기능(프리퍼지)  
· 예약운전기능  
· 자가진단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1φ 220V(전원코드형)  
· 소비전력 : 2.7KW/hr / 3.2KW/hr  
· 크기(WXDXH) : 400×300×730  
395×300×800



**10평형 12평형**  
DK-4010F / DK-4012F  
**권장소비자가격 : 682,000 / 737,000**  
· 자동온도조절기능(프리퍼지)  
· 예약운전기능  
· 자가진단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1φ 220V(전원코드형)  
· 소비전력 : 3.7KW/hr / 5KW/hr  
· 크기(WXDXH) : 400×250×1,000



**55평형 75평형**  
DK-4055R / DK-4075R  
**권장소비자가격 : 2,180,000 / 2,560,000**  
· 자동온도조절기능(프리퍼지)  
· 예약운전기능  
· 자가진단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음이온청정기능  
· 3φ 380V  
· 소비전력 : 23KW/hr / 30KW/hr  
· 크기(WXDXH) : 700×400×1,660

## 원적외선의 탁월한 효과



**40평형**  
DW-150H  
**권장소비자가격 : 980,000**  
· 자동온도조절기능  
· 예약운전기능  
· 원적외선 방사기능  
· 주유경보기능  
· 다단계안전차단기능  
· 연료탱크용량 : 40 l  
· 연료소모량 : 1.5 l / hr  
· 크기(WXDXH) : 1,300×320×1,060



**LG냉난방**

Tel. 031)541-0441~2. 542-3597

H.P. 017-238-7825

· 대표 · 박명복